

러시아 선교편지(2025.10)

존경하는 곽송기목사님과 사랑하는 대구신암교회 성도님들께 러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상황은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러시아 국내적 상황이나 외국인이 활동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정치적 상황은 북중러의 군사적 동맹수준에 따른 서방측의 대응으로 신냉전 상황에 접어들었고, 그에 따른 러시아 국내상황은 감시와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번호를 '고스우슬리기'라는 정부사이트앱에 모두 재등록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과정에 '스베르은행'이라는 국영은행에 가서 생체인식을 등록하여야 하고 사회연금재단에서 연금증번호를 발급받아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휴대폰 번호를 개설하는데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의 활동이 모두 추적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얼마전 모스크바의 성결교단 모 선교사가 갑자기 추방조치 되었고, 노보시비르스크의 우리 교단 모 총회파송 선교사는 공항에서 입국금지 조치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 우리 교단 모 총회파송 선교사도 입국비자와 사역이 달라 문제가 되어 일단 교회에서 사역을 멈추고 나와 숨죽이고 있어 모든 선교사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연해주쪽에서 활동하던 모 선교사가 체포되어 모스크바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점점더 감시통제가 심해져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희들 또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처해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사역을 보고드립니다.

노브고로드 지역 사역은 코로나 시기와 전쟁 상황 속에 기존 사역을 계속 회복 및 유지해 가면서,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교회가 없는 러시아 본토 서쪽 끝인 프스코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생지인 이 벨리키 노브고로드는 저희들에게 '역사적 땅끝'이고, 프스코프는 '지리적 땅끝'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서쪽끝인 프스코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동쪽끝 블라디보스톡까지 복음으로 점령하는 러시아 선교가 완성된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거점 확보를 위하여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해도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외국인이라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와야 할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호텔에 자고 와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프스코프 거리에서는 인터넷을 차단해 놓아서 그 불편이 이만 저만한게 아닌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성경읽기를 시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 마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추석)에 프스코프 국립도서관에서 한국어 소개를 하여 러시아 학생들을 초청하였고, 10월 7일에는 박지은 주 상트 페테르부르크 총영사님을 초대하여 프스코프고려인협회 설립인사 후 한글학교 수업을 할 '올긴스까야 김나지야'를 방문하도록 하여 '프스코프한글학교'를 정식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부터 프스코프에서 한국어 수업

을 하면서 우리 노브고로드한글학교 소속으로 추천으로 애터미 사업장 장소를 제공해 준 유가이(유) 인나씨를 재외동포청 주최 'CIS한국어교사 연수'를 지난 7월12일부터 8월 1일까지 3주간 보냈는데, 잘 수료하여 한국어 교사를 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한글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24일~8월2일까지 총영사관에서 '한복사진 전시회'를 우리 노브고로드에서 하였는데, 마지막날에는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전통 부채만들기, 팔랑개비 태극기 만들기, 전통공예 매듭만들기, 공기놀이 등 한국문화를 알리며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17일~9월20일 기간은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트레스 디아스'에 우리 교회 2명의 청년을 후보자로 참가시켰고, 저는 '성령' 주제(로요)발표자(로이스타)로 함께 참가하여 봉사하며 모두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후보자 2명중 한명인 예브게니야는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비전이 성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욥 4:10-11) 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프스콥 사람들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나가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홍보간판



프스콥 국립도서관 한국어 소개



프스콥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프스콥 고려인협회 임원들(한국어 제자들)



박지은 총영사 프스콥한글학교 개설 장소 방문(올긴스까야 김나지야)



노브고로드한글학교 수업



노브고로드한글학교 수업



노브고로드한글학교 수업



프스콥 한국어 수업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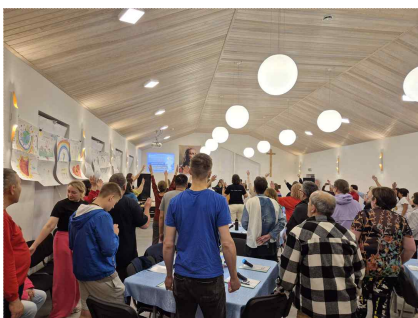
성경읽기 및 나누기



MIP(Moms in Prayers) 기도모임



트레스 디아스 영성훈련 참가



트레스 디아스 영성훈련 참가



한국문화행사



한국문화행사

* 기도제목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2. 프스코시에 교회가 개척되고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3. 예배와 말씀공부를 통한 성도들의 영적성장으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4. 성경읽기 모임, MIP(Moms in Prayers) 기도모임, 일대일 제자훈련 등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5. 청년 알리나, 예브게니야, 엘레나, 로만, 일리야, 니키타, 나스짜의 신앙성장과 비전을 위하여
6. 한글학교 교사 박이리나, 나스짜, 유가이 인나의 신앙성장과 복음전도 사명을 위하여
7.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의 영육간의 강건과 안전을 위하여

2025. 10. 8

러시아에서

김영호 서향정 선교사 드림